

전남 서부권

기자노트

12일간 열린 '제 13회 함평 나비축제'가 지난 10일 막을 내렸다. 올해 축제는 지난해보다 5일 정도 일정이 짧았으나 관광객 수는 29만4000여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했고 입장료와 농특산물 매출은 늘어났다. 나비축제는 산업자원이 특

무결점 '함평나비축제' 되려면

별한 특산물, 먹을거리가 부족한 지역실정에서 '나비'와 '곤충'을 소재로 한 축제라는 참신한 아이디어 하나로 지난 1999년 시작, 이제는 누구나 한번쯤 가보고자 하는 봄철 대표 축제로 자리잡았다. 문화관광부 지정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황운학

〈서부취재본부 기자〉

썼다"고 주장했다. 올해 축제는 쿠폰 발행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창출 의지는 돋보인 반면 관광객에 대한 세심한 배려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관광객에 대한 배려와 서비스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관광객들의 발길은 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굳은 또 다른 축제의 시작으로 생각하고 '환골탈태'(換骨奪胎) 해야 한다.

/hwang@kwangju.co.kr



새마을 부녀회 주말농장서 월례회의 목포 죽교동 새마을 부녀회는 지난 13일 달산 주말농장을 일구며 이색 월례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원들은 지난달 파종한 열무와 갖이 잘 자라도록 잡초를 제거하고 수확했다. 〈목포시 제공〉

목포 어르신 한마당 큰잔치

오늘 목포체육관서

'제4회 목포 노인 한마당 큰잔치'가 65세 이상 노인과 자원봉사자 등 5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7일 목포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목포시는 전국 제일의 노인건강 도시를 지향하는 시정방향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노인 한마당을 열고 있다.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시립국악원 공연에 이어 22개 동별로 선수단

이 입장한다. 개회식에서는 대한노인회 주관 '복지대상'을 박지민 민주당 원내대표가 수상하게 되며 '제39회 어버이 날' 기념 경료효친 유공자(33명) 표창도 예정돼 있다. 이어 각 동별로 노인들의 건강과 화합의 장을 연출하는 '실버 명랑운동회'가 펼쳐지며, 점심시간에는 동별로 특색있는 효도상을 준비해 5월 '가정의 달' 의미를 더욱 깊게 할 계획이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진도 민물뉘시대회 성황

'제3회 전남도연합회회장배 국민생활체육 전국 민물뉘시대회'가 지난 15일 지산면 보전 저수지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는 서울·경기, 광주 등지에서 200여명의 뉘시인들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대회 결과 영예의 1위는 길이 36cm

붕어를 잡은 성보용(곡성군)씨가 상금 100만원과 상장 및 트로피를 받았으며, 2위는 정경철(광주)씨, 3위 임동희(광주), 4위 양병주(광주), 5위 김범석(광주)씨가 각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부부상은 김금란, 윤양하씨 등이, 특종상은 잉어 46cm를 낚아 올린 최영관씨가 수상했다. 〈서부취재본부=백현영기자 hypark@

목포 북항 수질개선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 3단계사업 이달 착공

시, 19~20일 주민 설명회... 2013년 완공 목표

목포시가 수질개선과 악취 제거를 위해 추진하는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이 오는 2013년 완료된다. 목포시는 지난해 착수한 1·2단계에 이어 올해 연산, 원산, 북항, 산정동 일원에 총사업비 325억원의 민간 자본을 투자해 3단계 하수관거 정비 BTL(임대형 민자사업)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이번 사업 착공을 앞두고 19~20일 이틀간 주민설명회를 연다. 오는 2013년 완공 예정인 이 사업은 ▲관거정비 19.5km ▲배수설비 1072개소 등이다. 시는 지난해 4월 BTL 1단계 사업(503억원)을 준공, 운영 중에 있으며, 2단계 공사는 661억원을 투자해 현재 73%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2단계 사업은 용당 1.2동, 연동, 산정동, 목원동, 용해동, 산정 일원에서 하수관거 정비 50.3km, 배수설비 651개소, 저류조 1개소와 목포역 대하수도를 현대식 PC 박스로 교체하는 공사다. 목포시 관계자는 "3단계 사업이 끝나면 빗물과 오수를 분리 배출해 북항 수질개선과 매년 들어가는 정화조 청소 관리비용 감소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영광 민꽃게에 붙은 이물질 정체는?

수산과학원 "학계 보고 안된 무척추동물"

온난화 등 기상이변에 생태계 변화 추정

영광해역에서 발견된 민꽃게(꽃게)에 붙은 이물질(사진 원안)이 국내 학계에 전혀 보고된 적이 없는 무척추동물로 나타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지구 온난화 등 기상 이변에 따른 해양 생태계 변화로 이물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있어 관계기관들의 발견 해역 등에 대한 정밀 생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영광수협이 국립 수산과학원 조사와 별도로 한남대 측에도 해당 이물질의 성분 분석을 의뢰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국립 수산과학원은 영광군청으로 부터 이물질에 대한 성분분석을 의뢰받아 조사한 결과 '국내에 보고된 적이 없는 하등한 무척추동물'이란 것 외에 알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결과를 통보해 왔다. 수산과학원은 당초 이물질이 어패류에서 흔히 발견되는 해면동물이거나 군체 멍게 또는 이끼 벌레(태형동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여겼으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생명체에서 외국의 자료와 문헌 조사를 통해 이 생명체의 종명(種名)을 밝혀내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서 '태조어진' 생생체험

매달 둘째·넷째주 토요일 운영 청소년 대상 조선왕조 탐방

전주시는 5월부터 매달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 경기전 일원에서 초등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기전, 태조어진 생생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둘째 주에는 경기전의 제례를 직접 체험해 보는 '경기전 분향례 체험', 경기전의 소장유물을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 보는 '경기전 소장유물 만들

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넷째 주에는 태조 어진을 전통적인 어진 제작 기법으로 그려보는 '도전, 어진화사'와 경기전과 조선왕조의 대표적 역사 유적지를 탐방하는 '태조 어진의 발자취를 따라'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 시는 상설 체험 행사로 태조 어진의 반차행렬을 탁본해 보는 '탁본 체험'과 태조 어진의 어좌를 원형 그대로 재현해 사진을 찍어 볼 수 있는 '태조어진 어좌 포토존'도 준비했다. 문의(어진박물관 063-231-0190)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김제소방서 문화재 화재진압 훈련

능력 강화를 위한 민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김제소방서(서장 김화성)와 교통철도주 민선센터는 지난 12일 사회적 제482호로 지정된 김제 동헌·내아에서 문화재 화재진압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전북취재본부=홍순선기자 hnews@

군산 해망동 매립지 시민쉼터로

교량 가설·체육시설 등 친수공간으로 개발

국토부 이달말 고시... 국비지원 길 열릴 듯

오랜 기간 방치돼온 군산시 해망동 해상매립지(207만㎡)가 친수 공간 등으로 탈바꿈한다. 16일 군산시에 따르면 해망동에 조성된 해상매립지가 최근 국토해양부 의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안)에 포함돼 이달 말 최종 확정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확정 고시되면 황만 친수시설로 개발하는 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그간 개발의 걸림돌이었던 재원 조달 문제가 해소된다.

시는 올해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일단 해상매립지와 해망로를 연결하는 교량 2기를 건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가 예산에서 연결교량 가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비 10억원을 확보하고 2013년에 착공해 2016년에 준공할 방침이다. 교량을 가설하고 나서는 이곳에 체육 시설과 산책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시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 항만기본계획

에 해상매립지가 반영된다는 것은 교량 설치와 체육 시설 등을 조성하는데 소요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뜻인 만큼 기본계획이 조만간 고시되면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상매립지는 지난 1980년부터 2006년까지 군산항 안에서 퍼올린 토사 등으로 조성한 인공섬으로, 군산시는 전문가의 용역 등을 통해 이곳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4천300억원에 달하는 재원조달 방법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어왔다. 〈전북취재본부=박금식기자 nogusu@

뉴스 브리핑

원광대, 중국문제연구소 설립 특성화 교육

원광대는 중국의 정치와 경제 대국 부상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 문제연구소를 설립하고 중국 특성화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세현 총장은 지난 13일 송산 기념관에서 열린 개교 65주년 기념식에서 "중국 전문가 양성에 눈을 돌리는 것은 국제화 시대 인재 양성 차원에서 당연한 책무"라

서 "이를 위해 '중국문제연구소'를 설립하고, 관련 단과대학이나 학과에서부터 중국어 특성화 교육을 시행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정 총장은 또 "도덕을 바탕으로 의.생명 분야와 신성장 동력 창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전주 국제영화제 수상작 3편 무료 상영

전주 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올해 영화제의 수상작 3편을 오는 19일 오후 2시 전주 디지털 독립 영화관에서 무료로 상영한다. 상영작품은 한국장편 경쟁부문에서 대상을 받은 박찬경 감독의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안양에'와 심사위원 특별상을 탄 램튼

시에라 수아솔라 감독의 '엘레테리아의 꿈', 국제 경쟁부문 대상인 카르데나스 감독의 '장 장티'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전주 국제영화제의 여운을 다시 한번 즐길 기회를 주고자 무료 상영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남원시, 자전거 주차장 구축 공모사업 선정

남원시가 최근 국토해양부와 철도공사 주관의 '자전거 주차장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올 하반기에 남원역 광장에 국고 4억6000만원을 들여 150대 규모의 자전식 자전거 주차장 시설을 오는 7월 착

공해, 12월말 완공시킬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자전거 도입으로 철도 이용객 누구나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어 자전거이용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정읍시 어린이공원 3곳에 체험학습장 조성

정읍시 수성동 어린이공원 3개소에 체험학습장이 조성됐다. 정읍시는 수성 초등학교와 부영2차·제일아파트 어린이공원에 친환경 놀이대와 사각 정자를 설치하고 꽃동산을 조성했다. 330㎡ 규모로 조성된 꽃동산에는 철쭉, 패랭이 등 우리꽃 20여종을

식재했다. 시는 조만간 3개 공원의 화장실 리모델링도 추진, 세면기와 소변기 등을 교체해 한결 쾌적한 화장실을 만들어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전북개발공사 여자육상선수단 창단

최근 전북지역 자치단체들의 집단 체육팀 해체속에 전북개발공사가 창단한 여자 육상 선수단을 창단했다. 전북개발공사는 지난 11일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여자 육상 선수단 창단식을 가졌다. 전북개발공사는 도민복리를 위해 설립된 지방 공공기업으로서 선도적 역할 수행과 육상분야 우수선수 영의유

출 방지 및 육성을 위해 올 초부터 육상팀 창단을 준비해 감독 1명, 선수 4명으로 이뤄진 여자 육상단을 창단하게 됐다. 전북개발공사 유용하 사장은 "침체에 빠진 전북 체육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들이 요구하는 공익적 기여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